

4월 둘째 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45~46절 (4월 7일 본문)

■ 포인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 1. 찬양

(새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2. 기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수선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 3. 말씀

마태복음 27장 45~46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말성경>

45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46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 본문 이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인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관계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빌 2:9~11).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히 2:14~15). 또한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고통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히 2:14~15).

≡ 4. 나눔

1)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실 만큼(46절)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저학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46절)

■ 유아, 유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질문 가이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묻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버림당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슬플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나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세요.

2) 죄인인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보세요.

■ 저학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 유아, 유치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외쳐 보세요.

▣질문 가이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본 적 있나요?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아 흔들리게 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인도자를 위한 해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롬 8:34~35). 죄를 지어도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 단번에, 완전하게 죄 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롬 8:1~2).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 8:34~35).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Tip.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완전히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 5. 감사하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 6. 기도

하나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세요.

▣ 7. 가족 미션

<3분간 침묵 기도 하기>

1. 각자 종이 위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에 나의 힘든 마음, 나의 죄, 삶의 어두운 부분 등을 모두 적어 보세요.
2. 눈을 감고 침묵하며 기도하세요. 종이에 쓸 수 없었던 것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보세요.
3.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